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에 관한 연구』의 유혹에 관한 문헌 분석

정 환 규

(신부,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이전 성적 유혹 |
| II. 저자와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에 관한 연구』 | 이야기들과의 관계 |
| III. <i>Tractatus</i> 에 나타난 유혹 | V. 나가는 말 |

국문 초록

아씨시 근처 포르치운쿨라에 있는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딸린 정원에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관련된 유혹 이야기가 전해진다. 간략히 소개하면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가시덤불 속에 몸을 던졌는데, 이후에 가시가 사라진 장미가 피어났고 오늘날까지 이 가시 없는 장미가 대성당의 정원에 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공식 전기 안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근거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프란치스코 바르톨리(Franciscus Bartholi de Assisio)가 작성한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에 관한 연구』(*Tractatus de indulgentia S. Mariae*

de Portiuncula) 8장에 실려 있는 것으로, 한겨울인 1월 어느 날 밤 기도에 열중하고 있던 프란치스코에게 일어난 유혹에 대한 이야기이다. 프란치스코는 유혹에 맞서 알몸으로 숲속에 있는 가시덤불 사이에 몸을 내던졌는데, 이렇게 유혹을 이겨 낸 프란치스코 주위를 밝은 빛이 비추고, 형언할 수 없이 향기롭고 또 아름다운 장미들이 피어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보나벤투라의 『대전기』(*Legenda Maior*), 토마스 첼라노의 『제2생애』(*Vita seconda*) 그리고 대 그레고리오 교황의 『베네딕도 전기』(*Vita Benedicti*) 등을 함께 참조하였고, 이것을 통해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에 관한 연구』 속에 나타난 유혹 이야기가 성적 유혹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프란치스코의 유혹 이야기는 그 시작과 진행에서 『대전기』와 『제2생애』를 따라가고 있으며, 유혹의 해결에서는 『베네딕도 전기』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주제어: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바르톨리,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에 관한 연구』, 장미 정원, 성적 유혹

I. 들어가는 말

아씨시를 순례하는 순례자들이라면, 또 굳이 순례를 하지는 않더라도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접해 보았을 것이다.

성당 외부는 화려한 바로크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아씨시의 기적 중 하나인 가시 없는 장미가 있다. 여기에는 성 프란체스코가¹⁾ 욕망을 이기기 위해 가시덤불 속에 몸을 던졌는데 이후 가시 없는 장미만 자랐다는 이야기가 내려온다.²⁾

1) ‘프란치스코’의 발음의 경우, ‘프란체스코’,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등 여러 표현이 섞여 사용되는데, 본문에서는 ‘프란치스코’를 사용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인용한 책의 저자 또는 역자가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때도 종종 있으며, 이런 경우 『神學展望』 집필규정에 의거,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다른 외국어 인명/지명도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이 규칙을 따른다.

2) 홍수연, 『이탈리아 100배 즐기기』, 알에이치코리아, 2017, 230.

...그리고 가시 없는 장미 정원을 지나간다. 이곳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인간적인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 장미 정원을 뒹굴자 장미가시가 사라져 성인을 보호했다는 이야기가 있다.³⁾

...프란체스코 성인이 가장 자제하기 힘들었던 것이 성욕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성욕을 참기 위해 장미밭에 뛰어들었는데도 이상하게 상처를 입지 않아 들여다 봤더니 장미에 가시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때 가시가 없던 장미는 지금도 남아 있다.⁴⁾

이것은 오늘날에도 아씨시 지역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에서 포르치운쿨라(Porziuncula)⁵⁾의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Basilica di Santa Maria degli Angel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미 정원’(il rosetto)에 관련된 성인의 이야기이다.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태어난 가시 없는 장미는 오늘날까지도 대성당의 정원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소개되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겪은 성적 유혹은 보나벤투라 성인이 작성한 공식 전기, 곧 『대전기』(Legenda Maior)와 토마스 첼라노(Tommaso da Celano)의 『제2생애』(Vita Seconda)에 나와 있는데, 포르치운쿨라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장소도 다를 뿐 아니라 장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장미 정원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이 이야기는 프란치스코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또 다른 성인전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런 의문들 속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의문은 형제회 수

3) 프리트헬름 그레베, 『유럽의 성지여행』, 김택완 역, 부엔리브로, 2008, 215.

4) 엄승범·곽윤실, 『이탈리아 여행백서』, 나무자전거, 2015, 292.

5) 이 지명은 이탈리아어로 ‘Porziuncula’이고, 라틴어로는 ‘Portiuncula’이다. 여기서는 프란치스코 성지 안내를 위한 기경호의 저서(기경호,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찾아서』, 프란치스코 사상 연구소, 2000)의 발음을 따른다. 그러나 이후에 책 제목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라틴어(Portiuncula)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사였던 프란치스코 바르톨리(Franciscus Bartholi de Assisio)의 포르치운쿨라에 관한 연구인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에 관한 연구』(*Tractatus de indulgentia S. Mariae de Portiuncula*) 속에서 쉽게 해결된다.⁶⁾ 필자는 이 작품에 나타난 프란치스코의 성적 유혹 이야기를 찾아보고, 이 이야기가 공식적인 전기, 토마스 켈라노의 전기, 그리고 다른 성인전 특히 베네딕도 성인의 이야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프란치스코 유혹 이야기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전 성인전과의 관계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II. 저자와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에 관한 연구』

1. 프란치스코 바르톨리

프란치스코 바르톨리는 ‘바르톨리’(Bartholi)라는 이름이 드러내는 것처럼, 부친의 이름을 딴 것으로 여겨진다.⁷⁾ 그는 아씨시에서 13세기 말에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라던가 가문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는 수도회에 들어가서 1312년에 페루지아(Perugia), 1316년에는 독일 쾰른(Colonia)에서 공부하였고, 이탈리아에 돌아와서는 아씨시 근처 포르치운쿨라 수도원에서 책임자로서 봉사하였다.⁸⁾

6) 기경호에 의하면 장미 정원은 “바르톨로의 프란체스코가 그의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에 관한 연구’ 제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기경호, 앞의 책, 162. 단어 ‘tractatus’는 ‘논’(論), ‘논고’(論考), ‘논설’, ‘검토’, ‘저작’, ‘설교’ 등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인데 강론, 권고, 토론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존 번역을 따른다. 참조: 허창덕, “tractatus”, 『라틴-한글사전』,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957; J.F. Niermeyer, “tractatus”, *Mediae Latinitatis Lexicon Minus*, Leiden, Boston, Köln: Brill, 2001, 1035.

7) 볼로냐(Bologna) 대학 도서관 2679 필사본은 그를 “Francesco da Bartolo da Scesi”로 기록하고 있다. 참조: Mario Sensi, “Francesco d’Assisi(Franciscus Bartholi de Assisio)”, *Dizionario Biografico degli italiani*, Volume 49, da Forino Ferdinando a Francesco da Serino, Roma: Treccani, 1997, 678.

당시는 가난에 대한 문제로 열띤 논쟁이 벌어지던 시기였다. 일부 회원들은 기존 회칙 및 절대적 청빈 계율의 엄수를 주장하였고, 다른 회원들은 청빈의 계율을 더 폭넓게 해석하자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일어났는데,⁹⁾ 가난에 관하여 엄격한 관점을 취한 이들은 머지않아 ‘영적인 형제들’, 다른 한편은 ‘공동체 형제들’이라 불리게 되었다.¹⁰⁾ 교회는 양쪽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둘 사이의 간극은 점차 벌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프란치스코 바르톨리는 ‘영적인 형제들’과 생각을 공유하면서,¹¹⁾ 복잡한 정치적, 종교적 논쟁에 말려 들어가게 된다.¹²⁾ 그러나 1330년, 피렌체의 주교와 토스카나의 종교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한다. 처음에는 이 회개가 의심을 샀지만, 결국 인정되었음은 확실하며, 이후 아씨시의 수도원에서 자신의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에 관한 연구』를 정성들여 작성하며 시간을 보낸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의 죽음을 1370년 이후라고 가정하지만 정확한 사망 연도는 알 길이 없다.¹³⁾

2. 포르치운쿨라 전대사

포르치운쿨라는 아씨시 성곽에서 약 4km정도 내려가 있다.¹⁴⁾ 이 아씨시 평원에는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 있고, 이 내부에

8) 같은 책 참조.

9) P.G. 맥스웰-스튜어트, 『교황의 역사』, 박기영 역, 갑인공방, 2005, 157-158 참조.

10) 모리스 카르모디, 『프란치스코 이야기』, 김일득 역, 프란치스코출판사, 2017, 358 참조.

11) Mario Sensi, 앞의 책, 678-679 참조.

12) 당시에 벌어진 가난에 대한 수도회 속의 논쟁과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 참조: 모리스 카르모디, 앞의 책, 335-407; 전수홍, 『함께 읽는 세계 교회사』 1, 생활성서사, 2009, 394-395; J.N.D. Kelly, Michael Walsh, “요한 22세”, 『옥스퍼드 교황 사전』, 변우찬 역, 분도출판사, 2014, 327-329.

13) Mario Sensi, 앞의 책, 679-680 참조.

14) 재속프란치스코 한국 국가형제회, “포르치운쿨라”,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을 위한 프란치스코 용어집』, 가톨릭출판사, 2004, 218 참조.

포르치운쿨라 성당이 놓여 있는데, 이곳은 성인이 사랑하였던 곳이며,¹⁵⁾ 오늘날에도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프란치스코 성인과 매우 가까이 있음을 깨닫는 곳이다.¹⁶⁾ 보나벤투라는 이곳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세상의 다른 어떠한 곳보다 이곳을 좋아했다. 그가 매우 작은 방법으로 종교적 생활을 시작한 곳도 바로 여기였으며, 그토록 뛰어난 발전을 이룬 곳도 여기였으며, 그가 행복하게 생을 마친 곳도 여기였다. 그는 죽을 때 형제 수사들에게 이곳을 다른 어떠한 곳보다 먼저 부탁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은 성모 마리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었다”(『대전기』 II, 8, 4).¹⁷⁾

이곳에는 전대사가 부여되어 있는데,¹⁸⁾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고해성사와 영성체 후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를 바침으로써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¹⁹⁾ 그러나 이 전대사의 기원에 관한

15) 니콜라 잔 도메니코·제럴드 루프, 『예술과 역사의 아씨씨』, 한국어판, Casa Firenze: Editrice Bonechi, 1995, 106 참조. 이 책에서는 성당 명칭을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대성당’, ‘포르치운쿨라 예배당’으로 표현하였다.

16) 프리트헬름 그레베, 앞의 책, 215 참조.

17) 보나벤투라, 『보나벤투라에 의한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권숙애 역, 분도출판사, 2013, 30. 원전은 다음과 같다. “Hunc locum vir sanctus amavit prae caeteris mundi locis; hic etenim humiliter coepit, hic virtuose profecit, hic feliciter consummavit, hunc in morte fratribus tamquam Virgini carissimum commendavit”(Legenda Maior II, 8, 4); Enrico Menestò, et al. eds., *Fontes Franciscani*, Assisi: Edizioni Porziuncola, 1995, 793. 보나벤투라가 작성한 프란치스코의 공식 전기는 *Legenda Maior*라 불린다. 이 전기를 비롯해서, 프란치스코의 저작들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비평본이 바로 여기 소개한 *Fontes Franciscani*이며, 이후 공식 전기의 내용은 이 비평본에서 인용되었다. 이 구절에 대해 신뢰할 만한 다른 번역을 소개한다. “성인은 세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이곳을 사랑하였다. 실제로 여기서 최초의 겸손을 깨달았으며, 여기서 덕에 진보하였으며, 여기서 행복하게 중심에 이르렀다. 죽음의 순간에 이 곳에서 동정 마리아께 가장 사랑스런 이곳을 형제들에게 맡겼다.”: 기경호, 앞의 책, 171.

18) 대사는 이미 그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인 벌(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으로 부분 대사와 전대사로 구분된다. 잠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경우 부분 대사, 전적으로 면제하는 경우 전대사로 부른다. Paulus VI, *Indulgentiarum doctrina*, Normae, 1 참조. 이 부분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그대로 인용된다. 그러므로 한글 번역본의 경우에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개정판, 주교회의의 교리위원회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1471항 참조.

19) 오늘날에는 이 성지를 포함한 작은 형제회의 어떤 성당이든 방문해서 조건들을 이

직접적인 문헌이나 초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 기원에 대한 의문 제기과 반대가 일어났다. 이에 ‘영적인 형제들’ 그룹에 속한 수도자들이 포르치운쿨라 전대사의 존재를 가능한 한 확실하게 입증하고 이 전대사가 빨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아씨시의 주교 테오발도(Teobaldo)가 1310년 그의 첫 사목 서한에서 이 전대사의 상세한 내용과 그 중요성, 유효함 및 소중한 가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근대에 일어난 전대사의 기원에 대한 연구들도 전대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그 역사성이 더욱 견고하게 되었고, 1988년 요한 바오로 2세는 교령으로 이 전대사를 거듭 확인하였다.²⁰⁾

3.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에 관한 연구』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에 관한 연구』는 *Tractatus de indulgentia S. Mariae de Portiuncula*라 불리고, 비평본을 작성한 폴 사바티에(Paul Sabatier)도 역시 이 제목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시작 부분에 “포르치운쿨라의 또는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의) 전대사에 관한 책을 시작한다”(Int.)²¹⁾라는 문장이 들어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이 책은 흔히 *Tractatus*, 또는 *Liber*라고 불린다.²²⁾ 이 책에 대한 가

행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재속프란치스코 한국 국가형제회, “포르치운쿨라 전대사”, 220 참조.

20) 참조: 기경호, 앞의 책, 168-169; J. 예르겐센,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조원영 역, 프란치스코출판사, 2012, 190-198.

21) “Incipit liber Sacrae indulgentiae Sanctae Mariae de Portiuncula vel de Angelis (Int.)” 필사본 344의 경우에는 “Incipit liber Sacrae indulgentiae S.M. de Angelis sive de Portiuncula”로 약간의 변동이 있다: Paul Sabatier, “Tractatus de indulgentia”, *Collection d'études et de documents sur l'histoire religieuse et littéraire du Moyen âge*, tome II, Paris: Librairie Fischbacher, 1900, 1 참조.

22) Stefano Brufani, “Francesco di Bartolo e il Liber Sacrae Indulgentiae S. Mariae de Portiuncula”, *San Francesco e la Porziuncola*, Assisi: Edizioni Porziuncola, 2008, 185 참조. 이하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에 관한 연구』는 *Tractatus*로 표기.

장 권위 있는 비평본은 폴 사바티에가 1900년에 작성한 것으로, 『중세 종교와 문학사에 관한 연구 및 문서 모음집』(*Collection d'études et de documents sur l'histoire religieuse et littéraire du Moyen âge*) II에 수록한 것이다.²³⁾

비록 우리에게 남아 있는 필사본은 저자가 아닌 다른 수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²⁴⁾ 이 필사본의 원저자가 프란치스코 바르톨리임은 책의 첫 페이지에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책에서 나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바르톨리 형제는…(Int.)”²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프란치스코 바르톨리가 대략 1335년 즈음 처음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는데,²⁶⁾ 그가 ‘영적인 형제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²⁷⁾ 그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 대사의 중요성과 합법성을 전하려 했음은 의심할 수 없다.²⁸⁾ 『포르치온쿨라의 전대사에 관한 연구』는 총 46장으로 구성되며, 크게 대사에 관한 내용을 전해 주는 첫 부분(1장-16장)과, 포르치온쿨라와 연관된 기적을 설명하는 두 번째 부분(17장-46장)으로 나뉘며,²⁹⁾ 각 부분이 시작되는 곳에는 장과는 독립된 설명문이 추가되어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⁰⁾

23) 이 비평본에는 새로운 필사본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지 못하였지만, 아직까지 이 비평본이 가장 권위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이 비평본을 따른다.

24) J. 요르겐센, 앞의 책, 193 참조.

25) “In quo libro Ego Frater Franciscus Bartholi de Assisio…(Int.)”: Paul Sabatier, 앞의 책, 1.

26) Stefano Brufani, *La vita religiosa in Assisi dal 1316 al 1367*, Assisi: Edizioni Porziuncola, 1982, 48 참조.

27) Mario Sensi, 앞의 책, 678-679 참조.

28) 아씨시의 주교 코라도(Corrado)가 특권 허가서를 공포하기 불과 몇 달 전에 프란치스코 바르톨리는 이 책을 주제에 맞춰 작성한다. Stefano Brufani, “Il liber di Francesco di Bartolo d’Assisi e l’inventio dell’indulgenza della Porziuncola”, *Il Perdono di Assisi*, Spoleto: Centro italiano di studi sull’alto medioevo, 2016, 119 참조.

29) 그러나 비평본 속의 항목(Rubricae)에서는 46장을 제외하고 내용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Paul Sabatier, 앞의 책, 98-101 참조.

30) 구분과 간략한 세부 내용은 비평본과 다음 두 책을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참조: Stefano Brufani, *Il Perdono di Assisi*, 119-126; Noel Muscat, “Introduction: The Portiuncula Indulgence”, *In defence of Portiuncula Indulgence*, Malta: TAU edition, 2012, 19. Noel Muscat은 16장부터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된다고 서술했으나, 이후 내용을 고려

- 첫 부분 : 대사에 관한 내용
 - 1장 ~ 4장 : 포르치운쿨라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서언
 - 5장 ~ 10장 : 대사에 대한 역사
 - 11장 ~ 16장 : 대사에 대한 여러 증언들(11장-15장)과 프란치스코의 유언(16장)
- 두 번째 부분 : 포르치운쿨라와 연관된 기적들
 - 17장 ~ 40장 : 대사와 연관된 기적들
 - 41장 ~ 46장 : 결언과 추가내용. 마르티노 4세와 요한 23세 이야기(41장-42장), 프란치스코에 대한 찬송(43장), 대사에 참석한 많은 이들과 7명의 증인들(44장-45장), 프란치스코 바르톨리가 시에나에서 받은 편지(46장)³¹⁾

III. *Tractatus*에 나타난 유혹

1. *Tractatus* VIII, 1-4 원문과 해석

유혹에 관한 이야기는 *Tractatus* 8장에 들어 있고,³²⁾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하는 부분(5-10장)에 속한다. 그런데 8장의 주제는 ‘프란치스코의 유혹’이 아니라, ‘어떻게 전대사와 관련된 일들이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이루어졌는지’³³⁾이다. 따라서 이 유혹은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에 관하

할 때 17장의 오기로 보인다.

31) 비평본에 있는 항목(Rubricae)에는 이 46장이 들어 있지 않다. Paul Sabatier, 앞의 책, 98-101 참조. 이것은 프란치스코 바르톨리가 이 책을 쓰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수도원들에 편지를 썼던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Noel Muscat, 앞의 책, 19 참조.

32) 기경호, 앞의 책, 162 참조.

33) 이 내용은 8장을 소개하는 부분에 들어 있다. “...quomodo in praedictâ ecclesiâ Sanctae Mariae de Angelis fuit beato Francisco determinata et specificata dies indulgentiae...”

여 중요한 사건일 수는 있지만 저자가 생각하는 주된 주제는 아니며 전대사 이야기의 보조 자료에 속하는 내용이다.

본문 내용은 총 9개 절으로 이루어지며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직접적으로 유혹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8장의 총 550단어 중 225개의 단어에 해당하며 그 비율은 42.7%이다.³⁴⁾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프란치스코의 대화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대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프란치스코에게 로마로 가도록 명령하신다.³⁵⁾ 유혹에 관련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⁶⁾

VIII, 1. Quum beatus Franciscus esset in cellâ, quae erat in horto post ecclesiam Sanctae Mariae, de mense januarii, et orationi vacaret nocte mediâ, ecce Satan venit et dixit ei: «Francisce, quare vis mori ante tempus? An ignoras quod dormire est potissimum alimentum corporis? Quare tu stas ad talia faciendum? Nonne alias dixi tibi in ecclesiâ quae vocatur Quatuor Capellae de comitatu Tudertino quod juvenis es et adhuc poteris facere paenitentiam de peccatis tuis? Ad quid ergo te ipsum punis in vigiliis et orationibus?»

2. Tunc beatus Franciscus exivit de cellâ veste nudatus et intravit silvam per grossam et clausam sepem, per vepres et spinas traducens corpus suum, Et dixit: «Melius est mihi inextimabiliter ut cognoscam passionem Domini quam ego obtemperem blanditiis inimici.»

3. Ubi quum esset cruentatus carnibus, affuit circa eum lumen maximum; et rubeae albaeque rosae miri odoris et venustissimi aspectus in magnâ copiâ circa eum apparuerunt, simulque cum ipso lumine multitudo angelorum in ecclesiâ et juxta ecclesiam.

(VIII, int.): Paul Sabatier, 앞의 책, 18.

34) 참고로 5절에서 9절까지는 302단어(57.3%)로 구성된다. 소개 부분은 37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소개 부분까지 고려하면 소개 부분은 전체의 6.6%(37단어), 1절에서 4절까지는 39.9%(225단어), 5절에서 9절까지는 53.5%(302단어)의 비율로 구성된다.

35) 이 구분은 저자 개인의 생각이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자유롭게 구분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36) Paul Sabatier, 앞의 책, 18-19. 폴 사바티에의 비평본에는 절을 구분하는 숫자가 들어 있지 않으나, 이후 설명을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숫자를 추가하였으며, 번역본이 없는 관계로 직접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4. Et tunc angeli dixerunt beato Francisco: «Accede velociter ad Salvatorem et ad matrem ejus in ecclesiâ.» Qui confestim se indutum veste candidâ conspiciens exsurrexit. Et accipiens de ipsis rosis XII albas et XII rubeas venit versum ecclesiam. Videbatur autem ei via quasi palleis et sericis vestibus strata. Et reverenter introiens in ecclesiam posuit dictos flores in altari. Et tunc vidit Dominum nostrum Jesum Christum et matrem ejus cum multitudine angelorum.

1. 복된 프란치스코가 1월 한밤중에 성 마리아 성당 뒤편 정원에 있는 작은 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탄이 다가와 말하였다. “프란치스코야, 왜 시간도 안 되었는데 죽기를 바라는 거냐? 잠자는 것이 몸에 제일 좋은 양식임을 모르는 거냐? 너는 왜 이런 것을 하는 거냐? 내가 다른 기회에 토디의 사람들에게 속한 콰투오르 카펠레 성당에서, 너는 젊고, 여전히 네 죄에 대해 통회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무엇을 위해 철야 기도로 너 자신에게 벌을 주는 거냐?”

2. 그때 복된 프란치스코는 옷을 벗고 독방에서 나가, 붉은 가시덤불과 나무로 덮여 속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통과하며 숲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말하기를 “원수의 유혹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의 수난을 아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좋다.”

3. 프란치스코가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그의 주위를 아주 큰 빛이 비추었고, 그 빛과 함께 천사들의 무리가 성당과 성당 주변에 나타났으며, 기묘한 향기를 내는 아주 아름다운 붉고 흰 장미들이 그의 주위에 아주 많이 피어났다.

4. 그리고 천사들이 복된 프란치스코에게 말하였다. “빨리 성당에 계신 구원자와 그분의 어머니께로 가거라.” 프란치스코는 즉시 흰 옷을 걸치고 일어서서, 흰 장미 열두 송이와 붉은 장미 열두 송이를 받아들고 성당으로 향했는데, 휘장과 명주로 된 옷으로 덮여진 길이 보였다. 프란치스코는 공손하게 성당에 들어가 제대에 장미를 놓았다. 그리고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머니를 보았다.

2. 기본 사항들

유혹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의 주체는 프란치스코와 사탄이며, 이 이름은 직접 이야기에 언급된다. 프란치스코는 대명사로 쓰인 경우

를 제외하고, 항상 ‘복된 프란치스코’(Beatus Franciscus)라 불리며 1절과 2절, 4절에 한 번씩 등장한다. 사탄은 2회 등장하는데, 1절에서는 정확히 ‘사탄’(Satan)이라고 언급되지만, 2절에서는 프란치스코의 입을 빌어 ‘적’(inimicus)으로 등장한다. ‘사탄’은 라틴어로 ‘satan’ 또는 ‘satanas’로 쓰이는데³⁷⁾ 그리스도교 안에서 악마, 용, 뱀과 같이 불려지며 요한 묵시록 12장 9절에는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나 있다.³⁸⁾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묵시 12,9).³⁹⁾

유혹이 일어난 장소도 이야기 속에 명확하게 드러난다. 유혹이 일어난 곳은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 뒤편에 딸린 정원에 있던 작은 방이다(VIII, 1).⁴⁰⁾

저자가 유혹의 시간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저 1월 어느 한밤중에 프란치스코가 기도하던 도중 일어났다는 것이다(VIII, 1).⁴¹⁾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인가? IX장의 내용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프란치스코는 유혹을 이기고 받게 된 장미를 가지고 로마로 가서 인노첸시오 교황의 후계자인 호노리오 교황을 만난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인노첸시오의 후임자 호노리오 교황을 만났다”(IX, 2).⁴²⁾ 여기에 나오는 호노리오 교황은 페루

37) 허창덕, “satan”, 『라틴-한글사전』,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815.

38) 프레드 게팅스, 『악마 백과사전』, 강창현 역, 보누스, 2014, 233-235 참조.

39) 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 편,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571. 라틴어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t proiectus est draco ille magnus, serpens antiquus, qui vocatur Diabolus et Satanas, qui seducit universum orbem; proiectus est in terram, et angeli eius cum illo proiecti sunt”: *Biblia Sacra Iuxta Vulgatam Versionem*,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1893.

40) “Quum beatus Franciscus esset in cellâ, quae erat in horto post ecclesiam Sanctae Mariae…”(VIII, 1): Paul Sabatier, 앞의 책, 18. 전승에 따르면 프란치스코가 포르치온콜라에 돌아왔을 때, 보통 머물던 움막이 있던 곳에 현재 장미 경당이 세워져 있다. 기경호, 앞의 책, 162 참조.

41) “...de mense januarii, et orationi vacaret nocte mediâ,...”(VIII, 1): Paul Sabatier, 앞의 책, 18.

42) “...et ibi invenerunt dominum papam Honorium successorem domini Innocentii vicarii

지아에서 서거한 인노첸시오 3세의 뒤를 이어 교황으로 선출된 호노리오 3세를 의미하고, 1216년 7월 18일부터 1227년 3월 18일 로마에서 사망할 때까지 교황직을 수행했다.⁴³⁾ 따라서 프란치스코가 호노리오 교황을 만났다면 그 유혹의 시기도 이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전기 작가들은 전대사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후대의 작가들은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가 1216년부터 매년 허락되었고, 호노리오 3세가 정한 8월 1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유효했다고 주장하는데,⁴⁴⁾ 이것을 고려하면 *Tractatus*에 언급된 유혹은 1216년 1월 어느 한밤중, 기도하던 중에도 일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는 1181/1182년 아씨시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⁴⁵⁾ 이런 유혹이 약 35세 때 일어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유혹은 악마의 일방적인 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다. 악마는 프란치스코에게 직접 질문을 던짐으로써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유혹을 한다. 처음 두 질문을 통해서 악마는 잠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질문한다(VIII, 1 참조).⁴⁶⁾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사항이며, 잠을 잔다는

Jesus Christi···”(IX, 2): Paul Sabatier, 앞의 책, 21.

43) J.N.D. Kelly, Michael Walsh, 앞의 책, 291 참조.

44) 참조: J. 요르겐센, 앞의 책, 192; Mario Sensi, 앞의 책, 680. 현재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도 이 연도를 따른다. 그래서 지난 2016년 포르치운쿨라 전대사 80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있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특별히 아씨시를 방문하였다. 참조: Convento Porziuncola, “Indulgenza della Porziuncola, 1216-2016”, <http://www.porziuncola.org/viii-centenario-del-perdono-di-assisi-19748-1.html>(검색일: 2018.8.7); Alberto Bobbio, “Perdono di Assisi, da 800 anni sigillo di misericordia”, <http://www.famigliacristiana.it/articolo/perdono-di-assisi-800-anni-sigillo-di-misericordia.aspx>(검색일: 2018.8.7); Maria Teresa Pontara Pederiva, “Da Assisi 800 anni di misericordia: In attesa di Papa Bergoglio si è rinnovata la «Festa del Perdono» voluto da san Francesco”, <http://www.lastampa.it/2016/08/02/vaticaninsider/da-assisi-800-anni-di-misericordia-7PrvNEXVEnyBeQIaqGgm6N/pagina.html>(검색일: 2018.8.7).

45) 아씨시 프란치스코·클라라, 『아씨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작은형제회 한국 관구 편, 프란치스코출판사, 2016, 427 참조.

46) “«Francisce, quare vis mori ante tempus? An ignoras quod dormire est potissimum alimentum corporis?»”(VIII, 1): Paul Sabatier, 앞의 책, 21.

것은 먹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본질적이다.⁴⁷⁾ 악마는 마치 프란치스코를 위하는 듯이 인간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유혹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에서 비로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다(VIII, 1 참조).⁴⁸⁾ 악마의 목표는 프란치스코가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것을 그치게 하려는 것이다. 과거에 악마 자신이 이미 프란치스코가 젊고(juvenis es) 또 미래에도 여전히 통회할 수 있음(adhuc poteris facere paenitentiam)을 말했다는 악마의 네 번째 질문은 이런 유혹이 과거에도 일어났음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프란치스코가 밤새 기도하는 것을 ‘자신을 벌주는’(teipsum punis) 것으로 몰아가면서 기도를 미루고 잠을 취하도록 프란치스코를 유혹한다.

3. 유혹의 극복과 결과

악마의 이야기를 들은 프란치스코는 방을 나가서 옷을 벗은 채 가시로 뒤덮인 숲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원수들의 유혹에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의 수난을 아는 것이 더 좋다고 대답함으로써 유혹에 휘둘리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한다(VIII, 2 참조).⁴⁹⁾ 이처럼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것은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낯선 것이 아니다. 이후에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을 때에도 주님의 수난에 대한 묵상이 선행했다. “그는 복음서를 세 번 펼쳤는데 매번 수난의 장이 펼쳐져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했던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그분과 같았던 것과 똑같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분

47) 쉴라 레이버리, 『잠의 치유력』, 김병후 역, 이채, 2003, 18 참조.

48) “Quare tu stas ad talia faciendum? Nonne alias dixi tibi in ecclesiâ quae vocatur Quatuor Capellae de comitatu Tudertino quod juvenis es et adhuc poteris facere paenitentiam de peccatis tuis? Ad quid ergo teipsum punis in vigiliis et orationibus?” (VIII, 1); Paul Sabatier, 앞의 책, 18.

49) “«Melius est mihi inextimabiliter ut cognoscam passionem Domini quam ego obtemperem blanditiis inimici.»”(VIII, 2): 같은 책.

의 수난의 근심과 고뇌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대전기』 XIII, 2, 3).⁵⁰⁾

이렇게 육체적 고통과 주님 수난에 대한 생각으로 악마를 이겨 낸 프란치스코에게 기묘한 일들이 일어난다. 피투성이가 된 프란치스코에게 큰 빛이 나타났고, 장미가 피어오르며 천사들의 무리가 등장한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천사들의 말을 따라 장미를 들고서 성당으로 가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머니를 만난다.

4. 제기되는 문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악마가 유혹하는 방식이나 내용 어디에도 성적인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악마는 그저 프란치스코의 고행의 삶에서 발생하는 육체적인 해악과, 그런 고행이 불필요함을 슬며시 밀어 넣으면서, 회개의 삶을 그만두도록 시도할 뿐이다.⁵¹⁾ 안토니오처럼 악마가 여인으로 변화하여 나타난다거나,⁵²⁾ 베네딕도처럼 마음속에 여인을 떠오르게 하는⁵³⁾ 그런 행위가 이 이야기 속

50) 보나벤투라, 앞의 책, 140. 라틴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Sane cum in trina libri apertione Domini passio semper occurreret, intellexit vir Deo plenus, quod sicut Christum fuerat imitatus in actibus vitae, sic conformis ei esse deberet in afflictionibus et doloribus passionis, antequam ex hoc mundo transiret”(Legenda Maior XIII, 2, 3): Enrico Menestò, et al. eds., 앞의 책, 890.

51) Pasquale Magro, “Il «fenomeno Porziuncola» in versione iconografica”, *San Francesco e la Porziuncola*, Assisi: Edizioni Porziuncola, 2008, 288 참조.

52) 참조: 사악한 악마는 오직 안토니우스를 유혹할 의도로 밤에 여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온갖 방법으로 여자의 행동을 흉내 냈습니다(『안토니우스의 생애』 V, 5).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안토니우스, 『사막의 안토니우스』, 허성석 역, 분도출판사, 2015, 64. 그리스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Καὶ ὁ μὲν διάβολος ὑπέμενεν ὁ ἄθλιος καὶ ὡς γυνὴ σχηματίζεσθαι νυκτὸς καὶ πάντα τρόπον μιμεῖσθαι, μόνον ἵνα τὸν Ἀντώνιον ἀπατήσῃ.”(Vita Antonii V, 5): Athanase d’Alexandrie, *Vie d’Antoine*, Sources Chrétiennes 400, ed. G.J.M. Bartelink, Paris: Cerf, 2011, 144.

53) 참조: 악령은 (성인께서) 언젠가 본 적이 있는 한 여인을 마음의 눈앞에 떠오르게 하였다(『베네딕도 전기』 II, 1). 대 그레고리오, 『베네딕도 전기』, 교부문헌총서 11, 이형우 역주, 분도출판사, 1999, 103. 라틴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Quandam namque aliquando feminam uiderat, quam malignus spiritus ante eius mentis oculos reduxit,

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잠을 자는 문제는 육체의 문제이기
 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인 유혹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이
 이야기는 구체적 성적 유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유혹을, 표면적으로 나타난 ‘잠’ 곧 ‘육체적 유혹’을 넘어서 성적
 유혹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이 문제는 이전의
 성인전에서 나타난 성적 유혹과 비교해 볼 때 비로소 해결점을 찾
 아볼 수 있다.

IV. 이전 성적 유혹 이야기들과의 관계

1. 『대전기』에 나타난 성적 유혹

프란치스코의 성적 유혹은 보나벤투라가 작성한 『대전기』 5장 4
 절에 나온다. 이것은 1260년 나르본에서 있었던 형제회 총회의 결
 정에 따라서 당시 총장직에 있던 보나벤투라가 여러 자료를 기초
 로 해서 펴낸 전기이다. 이후 1266년 이 전기만이 유일한 정전으로
 인정된다.⁵⁴⁾ 여기에 들어 있는 성적 유혹에 관한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어느날 밤 사르테아노의 외딴 움막에 있는 자기 방에서 프란치스코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악마가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하고 그를 세 번이
 나 불렀다. 프란치스코가 악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악마는 계속해서 말
 하였다. “회개하는 데도 하느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죄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
 도 없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너무 많은 보속을 함으로써 제 자신을 죽인다면
 그는 결코 용서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영감에 의하여 성인은 즉시
 악마의 계락을 알았으며 악마가 그를 냉담하도록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Vita Benedetti II, 1): Gregorio Magno, *Dialogi*, ed. Adalbert de Vogüé, Roma: Città Nuova Editrice, 2000, 142.

54) 보나벤투라, 앞의 책, 5 참조.

깨달았다. 이러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것으로 증명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숨결이 솟불을 놓는”(욥기 41,12) 악마에 의해 즉시 육체의 심한 유혹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유혹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 프란치스코는 순결에 대한 사랑으로 수도복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끈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당나귀 형제야” 하고 외치기 시작했고, “이처럼 채찍질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도복은 수도자 품위의 표시이며 훌륭한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음욕적인 사람은 수도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만약 네가 다른 길을 가고 싶으면 떠나버려라!” 하고 말했다. 그 다음에 그는 극도의 열정에 차서 문을 열고 나가 정원에 쌓인 깊은 눈속에 벌거벗은 채로 굴렀다. 그런 뒤에 그는 두 손으로 눈을 조금씩 문쳐서 일곱 개의 눈뭉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서서 자기 육체에게 말했다. “자, 여기 있는 큰 것은 너의 아내이고 저기 네 개는 너의 자식으로 두 아들과 두 딸이다. 다른 둘은 이들을 돌볼 하인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이다. 서둘러 이들을 입힐 옷가지를 찾아라 - 그들은 추위로 죽어가고 있다. 그들을 돌보는 데 드는 수고가 네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다면 이제는 하느님 한 분만을 위해서 굳게 헌신하라.” 그때 유혹자는 물러났으며 따라서 성인은 승리하여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다. 추위가 그의 뺨속까지 사무쳐 왔지만 그의 내부에 있던 욕정은 완전히 꺼졌다. 그래서 그는 결코 다시 그와같은 어떤 것도 느끼지 않았다. 그 시간에 기도에 열중해 있던 한 수사는 맑은 달빛 아래서 일어난 이 일을 목격했다. 프란치스코는 그 수사가 자기를 본 것을 알고는 그에게 자신이 느꼈던 유혹에 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는 그가 보았던 것을 평생토록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다.⁵⁵⁾

*Tractatus*와 『대전기』의 유혹 사이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공통점은 ‘밤’이다. ‘밤’은 실제로 태양이 없는 상태이지만, 상징 속에서는 암흑이나 보호자 어머니의 자궁과 연결된다.⁵⁶⁾ 무엇보다 유럽 문화에서 낮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뜻하던 반면, 밤은 죽음을 뜻했고, 사자들의 영이 지상을 걸어다니고, 암흑의 권세가 퍼지는 시간이었다.⁵⁷⁾ ‘밤’이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55) 같은 책, 55-56. *Tractatus* 판본이 라틴어이므로, 『대전기』 역시 라틴어 판본을 참고 비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기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 번역본을 참고, 논리 전개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 이 번역을 존중하였다. 하지만 이럴 경우 올바른 번역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라틴어 판본은 ‘부록 1’ 참조.

56) Hans Biedermann, *Enciclopedia dei simboli*, trans. Lucio Felici, Milano: Garzanti Editore s.p.a., 1991, 326.

이 두 유혹 사이에서 ‘밤’이라는 시간은 결코 성인에게 호의적인 시간이 아니다. 특히 성적 유혹이라는 면에서, ‘밤’은 이미 아타나 시우스가 저술한 『안토니우스의 생애』(*Vita Antonii*) 속에 이미 등장하는 시간이다. 악마는 안토니오를 속이기 위해 ‘밤’에 여자로 자신을 변화시켜서 안토니오를 유혹했다.⁵⁸⁾

*Tractatus*에 등장한 ‘1월’의 시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전기』에는 ‘1월’과 같은 정확한 시간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후에 프란치스코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가 정원에 쌓인 깊은 눈 속에 별거벗은 채로 구르고, 두 손으로 눈을 조금씩 뭉쳐서 일곱 개의 눈뭉치를 만드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눈뭉치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눈이 그만큼 많이 와서 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상황은 당연히 한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떠올리게 한다. *Tractatus*에서 1월을 언급했다는 것은 겨울의 한복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시기를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겨울에 성적 유혹을 겪었던 프란치스코의 일화와 *Tractatus*의 유혹 이야기는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Tractatus*에서도 프란치스코가 ‘기도하는 도중’(orationi vacaret. VIII, 1) 악마가 다가왔듯이, 『대전기』의 성적 유혹에서도 자신의 움막에서 ‘기도하고 있던’ 프란치스코에게 악마가 다가온다. “어느날 밤 사르테아노의 외딴 움막에 있는 자기 방에서 프란치스코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대전기』 V, 4, 1).

그리고 횡수의 차이는 있지만, 악마가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부르며(VIII, 1)⁵⁹⁾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동일하다. 악마가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하고 그를 세 번이나 불렀다(『대전기』 V, 4, 1).

*Tractatus*에서 이어지는 악마의 첫 질문은⁶⁰⁾ 너무 많은 보속을 함으로써 제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영원히 자비를 얻지 못한다고 말

57) 데이비드 폰테니, 『상징의 비밀』, 최승자 역, 문학동네, 1998, 117 참조.

58) 각주 52를 참조하라.

59) “Francisce, quare vis mori ante tempus?”(VIII, 1): Paul Sabatier, 앞의 책, 18.

60) 각주 59를 참조하라.

하는 악마의 모습과 겹쳐진다. “회개하는 데도 하느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죄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너무 많은 보속을 함으로써 제 자신을 죽인다면 그는 결코 용서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대전기』 V, 4, 2).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보속을 막으려 하는 악마의 모습은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던 프란치스코에게 ‘왜 죽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면서 막아서는 악마와 결코 다르지 않다.

*Tractatus*처럼, 『대전기』에 나오는 성적 유혹 이야기에서도 악마의 이야기 자체에서는 어떠한 성적 유혹의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대전기』에서 프란치스코는 악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느님의 영감에 의하여 악마의 계략임을 알았고, 자신을 냉담하도록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성적 유혹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것은 그다음에 일어난 것으로 증명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숨결이 숯불을 놓는” 악마에 의해 즉시 육체의 심한 유혹을 느꼈기 때문이다”(『대전기』 V, 4, 5). 우리말로 ‘육체의 유혹’이라고 번역되지만, 이것은 성적 유혹을 가르키는 상투적인 표현이며 그다음에 나오는 프란치스코의 행동으로 성적 유혹임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프란치스코는 이 유혹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자 ‘순결에 대한 사랑’으로 수도복을 찢어 버리고 자신을 채찍질하기 시작한다. “이 유혹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 프란치스코는 순결에 대한 사랑으로 수도복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는 끈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기 시작했다”(『대전기』 V, 4, 6). 이처럼 기도와 보속에서부터 프란치스코를 멀어지게 하려는 악마의 구체적 행동이 바로 성적 유혹이다.

프란치스코 바르톨리가 1330년 이후 *Tractatus*를 공을 들여 작성한 것을 고려한다면,⁶¹⁾ 또 *Tractatus* 46장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프란치스코 바르톨리가 프란치스코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수도원에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청했던 것을 고려

61) Mario Sensi, 앞의 책, 678-679 참조.

한다면,⁶²⁾ 그는 당연히 공식 전기, 보나벤투라의 『대전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소개된 성적 유혹 이야기도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Tractatus*를 읽는 사람도 역시 공식적인 『대전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프란치스코의 성적 유혹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Tractatus*에서 『대전기』처럼 직접적인 성적 유혹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겨울(1월) 밤, 기도에 전념하던 프란치스코에게 악마가 다가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건네며 기도를 그만두게 하는 모습은 성적 유혹과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2. 토마스 첼라노의 『제2생애』에 나타난 성적 유혹

보나벤투라는 토마스 첼라노의 작품을 자신의 『대전기』를 작성할 때 자주 이용하였다. 보나벤투라가 토마스 첼라노의 글에서 『대전기』를 위해 얼마만큼 차용했는지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지만, 특별히 『제2생애』(*Vita seconda*)는 아예 한 단락 전체를 옮겨 적기도 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된 원천 자료로 여겨진다.⁶³⁾

성적 유혹 이야기에서도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의 성적 유혹과 관련된 『대전기』 5장 4절의 내용은 토마스 첼라노의 『제2생애』 82장 116-117절에 나오는 내용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2장. 악마가 프란치스코를 부르며 성욕으로 유혹함, 그리고 성인이 그것을 극복한 경위.

116. 사르티아노에 있는 형제들의 은둔소에서 생긴 일이다. 하느님의 자녀들을 항상 질투하는 악마가 성인을 거슬러 대담하게도 다음과 같은 짓을 하였다. 거룩함이 날로 증가하고, 어제 벌어 났다고 해서 오늘의 벌이에 등한하지 않는

62) Noel Muscat, 앞의 책, 19 참조.

63) 김종수, “성 보나벤투라 대전기와 소전기”, 『프란치스코 삶과 사상』 특집호, 프란치스코 사상 연구소, 2007, 150-152.

성인을 보고, 자기 방에서 밤에 기도하고 있는 프란치스코를 악마가 세 번 불렀다.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저쪽에서 대답하였다. “마음만 바로 잡으면 이 세상에는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인이 없다. 그러나 모진 고행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자는 결코 누구도 자비를 입지 못할 것이다.” 성인은 환시를 통하여 자신을 다시 미지근해지도록 유도하는 원수의 교묘한 술책임을 일시에 감지하였다. 그리고 나서 원수가 멈추지 않고 새로운 유혹으로 싸움을 걸어 왔다. 원수는 자기 올가미가 그렇게는 숨겨지지 않음을 파악하고 다른 올가미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소위 육(肉)의 미끼였다. 그러나 그것도 허사였다. 정신의 교묘한 수법까지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성인은 육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리하여 이번에는 악마가 가장 격한 성욕으로 그를 유혹하였다. 그러나 복되신 사부님은 이를 눈치 채고 옷을 벗어 던지고 다음과 같이 말하며 채찍으로 자신을 매우 심하게 때렸다. “자, 당나귀 형제야, 너는 이 꼴일 수밖에 없다. 채찍을 맞아 싸다! 속바지는 수도원의 소유이니 훔칠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러니 네 갈 길을 가고 싶거든 가거라!”

117. 그러나 그는 사지가 부르트도록 매질을 해도 그 유혹이 그를 떠나지 않았음을 알고는 방문을 열고 뜰로 나가서 눈더미에 알몸으로 뒹굴었다. 눈을 한 움큼씩 쥐어서 그것으로 눈사람 일곱 덩어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앞에 놓고 자기 몸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보라, 이 조금 큰 것은 너의 마누라다. 그리고 이것들 넷은 너의 두 아들이고 두 딸이다. 나머지 둘은 너에게 시종들어야 할 너의 종과 하녀다. 서둘러서 이것들의 옷을 입혀라! 얼어 죽을 지경이니 말이다. 이것들을 보살피는 일이 그다지도 짐스럽다면 하느님 한 분만이라도 열성적으로 섬겨라!” 그제서야 악마가 당황하여 재빨리 사라졌다. 그렇게 하여 성인은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마침 그때에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영적인 형제 하나가 밝은 달빛 아래 이 모든 장면을 환히 지켜보았다. 성인이 후에 이 형제가 자기를 그날 밤에 본 것을 알고 심히 당황하여,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다.⁶⁴⁾

『제2생애』에 등장하는 프란치스코의 성적 유혹은 『대전기』나 *Tractatus*의 유혹 이야기와는 다르게, 독립된 한 장으로 되어 있다.⁶⁵⁾ 하지만 내용은 『대전기』에 나오는 성적 유혹 이야기와 아주

64) 토마스 첼라노,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프란치스코 원전 II, 이 보나벤투라 역, 프란치스코출판사, 2007, 368-370. 『대전기』와 마찬가지로 『제2생애』의 라틴어 판본은 ‘부록 2’ 참조.

비슷하기 때문에 *Tractatus*의 유혹 이야기와 비교하면, 『대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프란치스코가 밤에 자기 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nocte quadam ad orationem vocaret in cellula*) 악마에 의해서 유혹이 일어났고,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부르면서 유혹을 시작하며(«Francisce, Francisce, Francisce!»), 눈에 알몸으로 뒹굴고(*in magnam nivem demersit se nudum*) 눈사람을 만들어(*septem glebas compingit*)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때, 이 시기가 한겨울이라는 것도 동일하다.

그런데 『대전기』에서는 간단히 프란치스코가 “그 숨결이 숲불을 놓는 악마에 의해 즉시 육체의 심한 유혹을 느낀”(『대전기』 V, 4, 5) 것으로 표현되지만, 『제2생애』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두 번에 걸쳐 - 육의 미끼(*carnis videlicet incentivum*)와 격한 성욕(*gravissimam tentationem luxuriaie*)- 일어났음을 전한다. 이러한 성적 유혹에 대한 강조는, 앞서 『대전기』와 *Tractatus*의 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ractatus*의 이야기를 성적 유혹으로 넓혀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3. 『베네딕도 전기』에 나타난 성적 유혹

Tractatus 유혹 이야기 전반부가 『대전기』 그리고 『제2생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베네딕도 전기』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네딕도 전기』는 대 그레고리오 교황이 작성한 것으로서, 특별히 2장 1-2절에 베네딕도가 육신의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이 들어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어느날 (베네딕도께서) 홀로 계실 때 유혹자가 다가왔다. 흔히 “메롤라”(merola)라고 하는 작은 검은 새 한 마리가 그분의 얼굴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더니 그

65) 이렇게 성적 유혹 이야기가 하나의 독립적인 장으로 구성된 것은 이미 『안토니우스의 생애』나 『베네딕도 전기』에서 나타난 양식이다.

분의 얼굴에 계속 성가시게 접근하였다. 거룩한 사람[聖人]께서 원하기만 하면 손으로 (그 새를) 잡으실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성호를 굵자 새가 사라졌다. 새가 떠나가고 나자 성인께서 전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육신의 유혹이 뒤따라 일어났다. 악령은 (성인께서) 언젠가 본 적이 있는 한 여인을 마음의 눈앞에 떠오르게 하였다. 아름다운 그 여인에 대한 (욕정의) 불이 하느님의 종의 마음을 심하게 타오르게 하였다. 그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꽃이 그분을 거의 사로잡았기 때문에 욕정에 못 이겨 은수처를 떠날 작정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

2. 그러나 (하느님이) 내려 주시는 은총을 즉시 감지한 그분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분은 옆에 쐬기풀과 가시덤불의 관목들이 뻗뻗히 자라 있는 것을 보시고 옷을 벗은 다음 가시나무의 가시와 불타는 쐬기풀 위에 알몸을 내던지셨다. 거기서 오랫동안 텅군 다음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로 나오셨다. 그러자 마음의 상처는 피부의 상처를 통해 육신에서 빠져나갔으니, 사실 그분은 욕정을 고통안으로 끌어넣어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적 (피부는) 복된 벌로 불타듯 (화끈거렸지만), 내적 불은 내쫓기고 꺼져 버렸다. 그분은 (욕정의) 불을 바꾸셨기 때문에 마침내 죄를 극복하셨던 것이다.⁶⁶⁾

베네딕도는 하느님께서 내려 주시는 은총을 감지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옷을 벗은 다음(nudum) 가시나무(ueprium)와 쐬기풀(urticarum) 위로 자신을 내던진다. 베네딕도가 이렇게 외면적 고통 속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은 언젠가 보았던 여인이 마음의 눈에 떠올라서, 사랑의 불꽃이(amoris flamma)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Tractatus*에서는 성적 유혹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프란치스코가 알몸으로(veste nudatus) 수풀로 들어가서 가시나무(vepres)와 가시(spinas)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은 베네딕도의 성적 유혹 이야기를 바로 떠오르게 한다.⁶⁷⁾

66) 대 그레고리오, 앞의 책, 103. 『베네딕도 전기』 라틴어 판본은 ‘부록 3’ 참조.

67) 마리오 센시(Mario Sensi)는 포르치운쿨라에 비테르보의 힐라리오(Ilario da Viterbo) 사제에 의해서 그려진 성화를 설명하면서, 프란치스코와 베네딕도의 차이점을 서술한다. 간략히 소개하면, 베네딕도가 유혹을 받은 것은 수도 생활의 포기를 위한 것이고, 이런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고행의 여정을 시도하는 수도자들을 위한 하나의 전형(exemplum)이 되었다면, 프란치스코의 경우는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유혹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시작했던 길 위에서 그것을 그만두게 하려는 유혹이었고, 프란치스코는 이런 유혹을 이김으로써 가까운 사람들에게 구원과 도움을 주기 위한 자신

대 그레고리오가 작성한 『대화록』의 원문은 남아 있지 않지만 사방에서 발견되는 필사본의 수라던가, 발췌문들, 인쇄물들을 판단해 보면 이 책이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지 알 수 있으며, 중세에도 다양한 언어 판본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베네딕도 규칙서』의 전파와도 연관이 되는데 규칙서를 따르는 수도회라면 당연히 규칙서와 더불어 『대화록』 전체, 아니면 적어도 『베네딕도 전기』가 필요했다.⁶⁸⁾ 포르치운쿨라의 성당의 시작에서부터 이어지는 프란치스코회와 베네딕도회 사이의 친교를 기억해 볼 때,⁶⁹⁾ 프란치스코 바르톨리는 『베네딕도 전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유혹 이야기도 그러했을 것이다. 또한 *Tractatus*를 읽는 이들은 『대전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적 유혹을 극복하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은 베네딕도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으며, 비록 자세한 설명은 없더라도 이 내용을 읽는 사람이라면 프란치스코가 베네딕도처럼 고통을 통해서 성적 유혹을 극복하는 것을 쉽게 연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베네딕도의 ‘췌기풀’(urticarum)이 프란치스코에게는 ‘가시’(spinas)로 바뀌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이미 기원전 1세기 푸블리우스 시루스(Publilius Syrus)가 “장미가 기다려지면, 가시도 또한 마음에 든다”고 언급한 것처럼,⁷⁰⁾ 또 오비디우스가 『사랑의 기술』(*Ars*

의 숭고한 결정에 남아 있게 된다. Mario Sensi, “Il pellegrinaggio al Perdono di Assisi e la tavola di prete Ilario da Viterbo”, *Assisi anno 1330*, Assisi: Edizioni Porziuncola, 2002, 293-295 참조.

68) Grégoire le Grand, *Dialogues*, tome I, Sources Chrétiennes 251, ed. Adalbert de Vogüé, Paris: Cerf, 1978, 141-143 참조.

69) 『아씨시 편집본』(*Compilatio assisiensis*) LVI, 1-26에는 이러한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프란치스코는 수바시오 산에 있는 베네딕도회 아빠스에게서 포르치운쿨라의 성 마리아 성당을 넘겨 받는다. 그들은 아무 보상이나 조건 없이 프란치스코에게 성당을 넘겨 주었지만, 프란치스코는 겸손과 가난의 표시로 매년 물고기 한 바구니를 보냈으며, 매년 이렇게 물고기를 보내면 베네딕도 수도승들도 프란치스코가 자발적으로 행한 겸손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여 기름 한 통을 가득 보내주었다. Enrico Menestò, et al. eds., 앞의 책, 1532-1536 참조.

70) 라틴어로는 “Spina etiam grata est si spectatur rosa”(Sententiae, 669)이다. Publilius Syrus, “Sententiae”, *Minor Latin Poets*, vol. I, trans. J. Wight duff, Arnold M. Duff,

amatoria)에서 “장미 꽃은 시들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고 말한 것처럼,⁷¹⁾ ‘가시’(spina)는 ‘장미’(rosa)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곳에 추가된 ‘가시’는 프란치스코가 유혹을 이긴 이후에 그의 주변에 피어오르는 붉고 흰 장미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VIII, 3).⁷²⁾

4. *Tractatus*에 나타나는 독특한 결말

『대전기』나 『제2생애』, 아니면 『베네딕도 전기』에 나오는 유혹 이야기와는 다르게 *Tractatus*의 결말에는 가시적인 표지 두 가지, 곧 빛과 장미가 등장한다.

유혹을 이겨 낸 프란치스코에게 먼저 등장하는 것은 ‘빛’(lumen)이다. 빛은 악이나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힘이고, 영광, 빛남, 기쁨이다.⁷³⁾ 이런 의미에서 이 빛은 프란치스코의 어둠, 곧 성적 유혹을 걷어 내는 힘이고, 그런 유혹을 이겨 낸 프란치스코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빛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러한 빛 가운데서 이루어진다.⁷⁴⁾ 프란치스코 주위에 빛이 비추이는 것은 이러한 하느님과의 만남을 예고하고 있으며, 빛과 함께 나타난 천사들은 프란치스코에게 빨리 성당 안에 계신 구원자와 그 어머니께 가라고 재촉한다(VIII, 4).⁷⁵⁾

장미는 장미과 장미 속(屬)에 속하는 다년생 관목 또는 덩굴 식물

London: Loeb Classical Library, 1982, 102.

71) 오비디우스, 『오비디우스의 사랑의 기술』, 김원익 역, 에버리치홀딩스, 2010, 129. 라틴어로는 “Et riget amissa spina relictâ rosa”(Ars Amatoria II, 116)이다. Ovidio, *L'arte d'Amare*, ed. Ettore Barelli, Milano: BUR, 2018, 172.

72) “et rubeae albaeque rosae miri odoris et venustissimi aspectus in magnâ copiâ circa eum apparuerunt…”(VIII, 3): Paul Sabatier, 앞의 책, 19.

73) 진 쿠퍼, “빛, 밝음”,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역, 까치, 1996, 194 참조.

74) 이은봉, “빛과 어둠”, 『한국 가톨릭 대사전』 6,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3842 참조.

75) “«Accede velociter ad Salvatorem et ad matrem ejus in ecclesiâ.»”(VIII, 4): Paul Sabatier, 앞의 책, 19.

로, 종의 수만으로도 전 세계에 거의 약 100여 종이 분포하며,⁷⁶⁾ 특별히 프란치스코의 승리의 결과 피어난 것으로 전해지는 장미의 학명은 ‘Rosa Canina Assisiensis’이다.⁷⁷⁾ 장미는 그리스도교에서 그 아름다움과 완전성 때문에 낙원을 뜻하며, 붉은 장미는 그리스도의 피를, 흰 장미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한다.⁷⁸⁾ 빛과 함께 나타난 천사들이 ‘구원자’(Salvatore)와 ‘그분의 어머니’(matrem ejus)에게 가라고 재촉하는 모습은 붉은 장미와 흰 장미가 가진 상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또한 *Tractatus*의 장미는 “우리의 자비로운 어머니, 곧 복된 프란치스코”⁷⁹⁾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프란치스코가 가진 어머니 상과도 연결되며, 이후 교황 호노리오 3세가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를 인정하도록 쓰인다.⁸⁰⁾ 이처럼 장미는 프란치스코의 성적 유혹 이야기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Tractatus*의 일관된 주제인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를 위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

프란치스코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흰옷을 입고 장미 24송이(흰 장미 12, 붉은 장미 12)를 들고 성당으로 들어간다. ‘12’라는 숫자는 한 해의 달수이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수이기도 하고, 사도들의 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곧 ‘12’라는 수는 교회를 예표하는 상징이며, 이 두 배수인 ‘24’는 ‘12’가 가진 상징 체계를 그대로 담게 된다. ‘24’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의 합이고, 구약의 열두 대표와 신약의 열두 대표가 모여 어린양을 기념하는 묵시록의 원로의 숫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24는 땅의 거룩한 배치가 하늘

76) “장미”,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18,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3, 610 참조.

77) Alessandro Tomei, ed., *La basilica di Santa Maria degli Angeli e la Porziuncola*, Milano: Silvana Editoriale S.p.A., 2001, 68 참조.

78) 참조: 진 쿠퍼, “장미/장미꽃 장식”, 앞의 책, 296; Edouard Urech, “Rosa”, *Dizionario dei simboli Cristiani*, trans. Paolo Piazzesi, Franca Fiorentino Piazzesi, Roma: Edizioni Arkeios srl, 2004, 222.

79) “pia mater nostra, videlicet b. Franciscus” 이 구절은 스펠로의 미켈레의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한다. Mario Sensi, *A ssisi anno 1330*, 291 참조.

80) Stefano Brufani, “Il perdono di Assisi e il pellegrinaggio alla Porziuncola”, *Amicitiae sensibus: studi in onore di Don Mario Sensi*, eds. Alessandra Bartolomei Romagnoli, Fortunato Frezza, Foligno: Accademia Fulginia, 2011, 437 참조.

에서 배가 되어 모인 것을 의미한다.⁸¹⁾

제대에 장미를 내려놓은 프란치스코는 곧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과 그 어머니를 보게 된다(VIII, 4).⁸²⁾ 이처럼 예수님을 직접 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강렬한 사건이다. *Tractatus*의 내용상 이 만남은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를 위한 일이지만, 동시에 성적 유혹을 극복한 프란치스코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포상이기도 하다. 이로써 이야기는 성적 유혹에서 벗어나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로 넘어간다.

V. 나가는 말

Tractatus 8장에 나타난 프란치스코의 유혹 이야기는 성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육체의 피곤함, 곧 잠을 자는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성적 유혹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게다가 유혹자 사탄의 이야기와 숲속 가시에 몸을 던지는 프란치스코의 고행도 ‘표면적으로는’ 어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널리 읽힌 성인의 전기들(『대전기』와 『제2생애』), 그리고 모든 서방 수도자들의 모범(exemplum)으로 전해지는 『베네딕도 전기』의 이야기를 겹쳐 보면, *Tractatus*가 담고 있는 성적 유혹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Tractatus*의 유혹 이야기는 시작과 진행에서 『대전기』와 『제2생애』를 따라가고 있으며, 유혹의 해결에서는 『베네딕도 전기』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Tractatus*가 담고 있는 유혹 이야기는 프란치스코가 성적 유혹을 이겨 낸 이야기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까지 장미 정원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81) 미셸 퀴이에, “12 또는 열둘”, 『그리스도교 상징사전』, 연속진 역, 보누스, 2009, 281 참조.

82) “Et tunc vidit Dominum nostrum Jesum Christum et matrem ejus cum multitudine angelorum”(VIII, 4): Paul Sabatier, 앞의 책, 19.

중요한 가치로 남는다. 또한 이야기의 결말에서는 *Tractatus*만의 독특한 특징을 잘 보여 주면서 이를 통해 포르치운쿨라의 전대사 이야기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간다.

*Tractatus*의 유혹 이야기는 이처럼 과거의 성인전을 기초로 할 때 좀 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장미 정원에 전해지는 이야기도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 투 고 일: 2018. 8. 27
수 정 일: 2018. 10. 29

심 사 일: 2018. 9. 11
게재확정일: 2018. 12. 6

부록: 유혹 이야기의 라틴어 판본

1. *Regenda Maior* V, 4: Enrico Menestò, et al. eds., *Fontes Franciscani*, Assisi: Edizioni Porziuncola, 1995, 815–816.

4 ¹Cum autem apud eremum de Sartiano nocte quadam orationi vacaret in cellula, vocavit eum hostis antiquus, tertio dicens: «Francisce, Francisce, Francisce!». ²Cui cum, quid quaereret, respondisset, fallaciter ille subiunxit: «Nullus est in mundo peccator, cui, si conversus fuerit, non indulgeat Deus; sed quicumque semetipsum poenitentia dura necaverit, misericordiam non inveniet in aeternum. ³Statim vir Dei per revelationem cognovit hostis fallaciam, quomodo nisus fuerit eum ad tepida revocare. ⁴Nam hoc sequens indicavit eventus. ⁵Continuo enim post hoc ad insufflationem illius, cuius halitus prunas ardere facit, gravis ipsum carnis tentatio apprehendit. ⁶Quam ut praesensit castitatis amator, deposita veste, chorda coepit se verberare fortissime: «Eia», inquit, «frater asine, sic te decet manere, sic subire flagellum. ⁷Tunica religioni deservit, sanctitatis signaculum praefert, furari eam libidinoso non licet; si quo vis pergere, perge!». ⁸Insuper et mirando fervore spiritus animatus, aperta cella, foras exivit in hortum, et in magnam demergens nivem corpusculum iam nudatum, septem ex ea plenis manibus coepit compingere massas. ⁹Quas sibi proponens, suo sic exteriori homini loquebatur: «Ecce», inquit, «haec maior uxor tua est, quatuor istae duo filii et duae filiae, reliquae duae servus et ancilla, quos ad serviendum habere oportet. ¹⁰Festina igitur omnes induere, quoniam frigore moriuntur. ¹¹Si vero eorum multiplex sollicitudo molestat, uni Domino sollicite servi!». ¹²Illico tentator victus abscessit, et vir sanctus in cellam cum victoria rediit; quia, dum bene poenaliter alsit foris, ardorem interius sic exstinxit libidinis, ut deinceps tale aliquid minime sentiret.

¹³Quidam autem frater, qui tunc orationi vacabat, haec omnia, luna clarius incedente, prospexit. ¹⁴Comperto vir Dei, quod haec ille nocte vidisset, reserans ei tentationis processum, praecepit, ut quamdiu ipse viveret, nulli viventi rem, quam viderat propalaret.

2. *Vita seconda* LXXXII, 116–117: Enrico Menestò, et al. eds., *Fontes Franciscani*, Assisi: Edizioni Porziuncola, 1995, 549–551.

Caput LXXXII – Quomodo diabolus vocans eum de luxuria tentavit, et qualiter sanctus superavit.

116 ¹In ermo fratrum de Sartiano malignus ille, qui semper profectibus invidet filiorum Dei tale quiddam erga sanctum praesumpsit. ²Videns namque sanctum sanctificari adhuc, nec pro hesterno hodiernum intermittere lucrum, cum nocte quadam ad orationem vocaret in cellula, vocavit eum ter dicens: «Francisce, Francisce, Francisce!». ³Qui respondit dicens: «Quid vis?». ⁴Et ille: «Nullus est in mundo peccator, cui, si conversus fuerit, non indulgeat Dominus; sed quicumque semetipsum poenitentia dura necaverit, in perpetuum misericordiam non inveniet». ⁵Statim sanctus per revelationem cognovit hostis astutiam, quomodo nisus fuerit eum ad tepida revocare. ⁶Quid ergo? Non destitit inimicus aliud inferre certamen. ⁷Cernens enim quod laqueum sic occultare non potuit, alium laqueum praeparat, carnis videlicet incentivum. ⁸Frustra tamen, quoniam qui spiritus deprehendit versutiam, carne sophisticari non potuit. ⁹Immittit ergo in eum diabolus gravissimam tentationem luxuriae. ¹⁰At beatus pater, statim ut percipit, veste deposita, chordula durissime se verberat, dicens: «Eia, frater asine, sic te manere decet, sic subire flagellum. ¹¹Tunica religionis est, furari non licet; si quo vis pergere, perge!».

117 ¹Videns autem propter disciplinas tentationem non discedere, cum tamen iam livoribus membra cuncta pinxisset, aperta cellula, foras exiit in hortum, et in magnam nivem demersit se nudum. ²Accipiens autem nivem plenis conficit manibus, et ex ea in modum pilae septem glebas compingit. ³Quas sibi proponens, coepit alloqui corpus: «Ecce», inquit, «haec maior uxor tua est; porro istae quatuor duo sunt filii, et duae filiae tuae; reliquae duae servus sunt et ancilla, quos ad serviendum habere oportet. ⁴Et festina», inquit, «omnes induere, quoniam frigore moriuntur. ⁵Si autem eorum multiplex sollicitudo molestat, uni Domino sollicitus servi!». ⁶Illico diabolus confusus abscedit, sanctusque in cellam revertitur glorificans Deum. – ⁷Quidam spiritualis frater, qui tunc vocabat orationi, luna clarius incedente, totum intuitus est. ⁸Sanctus autem, comperto postmodum quod ille se in nocte vidisset, dolens multum, praecepit ut rem nulli detegeret, donec in saeculo viveret.

3. *Vita Benedicti* II, 1-2: Gregorio Magno, *Dialogi*, ed. Adalbert de Vogüé, Roma: Città Nuova Editrice, 2000, 142.

II, 1. Quadam uero die, dum solus esset, temptator adfuit. Nam nigra paruaque auis, quae uulgo merola uocatur, circa eius faciem uolitare coepit, eiusque uultui inopportune insistere, ita ut capi manu posset, si hanc uir sanctus tenere uoluisset. Sed signo crucis edito, recessit auis. Tanta autem carnis temptatio, aui eadem recedente, secuta est, quantam uir sanctus numquam fuerat expertus. Quandam namque aliquando feminam uiderat, quam malignus spiritus ante eius mentis oculos reduxit, tantoque igne serui Dei animum in specie illius accendit, ut se in eius pectore amoris flamma uix caperet, et iam paene deserere heremum uoluptate uictus deliberaret.

2. Cum subito superna gratia respectus, ad semetipsum reuersus est, atque urticarum et ueprium iuxta densa succrescere fructecta conspiciens, exutus indumentum, nudum se in illis spinarum aculeis et urticarum incendiis proiecit, ibique diu uolutatus, toto ex eis corpore uulneratus exiit, et per cutis uulnera eduxit a corpore uulnus mentis, quia uoluptatem traxit in dolorem, cumque bene poenaliter arderet foris, extinxit quod inlicite ardebat intus. Vicit itaque peccatum, quia mutauit incendium.

참 고 문 헌

1. 원전 (일차 자료)

Athanase d'Alexandrie, *Vie d'Antoine*, Sources Chrétiennes 400, ed. Bartelink, G.J.M., Paris: Cerf, 2011.

Biblia Sacra Iuxta Vulgatam Versionem,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Magno, Gregorio, *Dialogi*, ed. de Vogüé, Adalbert, Roma: Città Nuova Editrice, 2000.

Menestò, Enrico, et al. eds., *Fontes Franciscani*, Assisi: Edizioni Porziuncola, 1995.

Ovidio, *L'arte d'Amare*, ed. Barelli, Ettore, Milano: BUR, 2018.

Paulus VI, *Indulgentiarum doctrina*, Acta Apostolicae Sedis 59(1967), 1967, 5-24.

Sabatier, Paul, "Tractatus de indulgentia", *Collection d'études et de documents sur l'histoire religieuse et littéraire du Moyen âge*, tome II, Paris: Librairie Fischbacher, 1900.

Syrus, Publilius, "Sententiae", *Minor Latin Poets*, vol. I, trans. Duff, J. Wight / Duff, Arnold M., London: Loeb Classical Library, 1982.

2. 원전 (이차 자료: 한글 번역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개정판,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역,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16.

대 그레고리오, 『베네딕도 전기』, 교부문헌총서 11, 이형우 역주, 분도출판사, 1999.

보나벤투라, 『보나벤투라에 의한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권숙애 역, 분도출판사, 2013.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안토니우스, 『사막의 안토니우스』, 허성석 역, 분도출판사, 2015.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첼라노, 토마스,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프란치스코 원전 II, 이보나벤투라 역, 프란치스코출판사, 2007.

3. 사전류

“장미”,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18,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3, 610.

이은봉, “빛과 어둠”, 『한국 가톨릭 대사전』 6,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3840-3842.

재속프란치스코 한국 국가형제회, “포르치운쿨라”,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을 위한 프란치스코 용어집』, 가톨릭출판사, 2004, 218.

_____, “포르치운쿨라 전대사”,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을 위한 프란치스코 용어집』, 가톨릭출판사, 2004, 220.

쿠퍼, 진, “빛, 밝음”,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역, 까치, 1996, 194-195.

_____, “장미/장미꽃장식”,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역, 까치, 1996, 294-296.

피이에, 미셸, “12 또는 열둘”, 『그리스도교 상징사전』, 연숙진 역, 보누스, 2009, 281.

허창덕, “satan”, 『라틴-한글사전』,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815.

_____, “tractatus”, 『라틴-한글사전』,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957.

Kelly, J.N.D. / Walsh, Michael, “요한 22세”, 『옥스퍼드 교황 사전』, 변우찬 역, 분도출판사, 2014, 327-329.

Niermeyer, J.F., “tractatus”, *Mediae Latinitatis Lexicon Minus*, Leiden, Boston, Köln: Brill, 2001, 1035.

Urech, Edouard, “Rosa”, *Dizionario dei simboli Cristiani*, trans. Piazzesi, Paolo / Piazzesi, Franca Fiorentino, Roma: Edizioni Arkeios srl, 2004, 222.

4. 한글 자료

게팅스, 프레드, 『악마 백과사전』, 강창현 역, 보누스, 2014.

그레베, 프리트헬름, 『유럽의 성지기행』, 김택완 역, 부엔리브로, 2008.

기경호,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찾아서』, 프란치스코 사상 연구소, 2000.

김종수, “성 보나벤투라 대전기와 소전기”, 『프란치스코 삶과 사상』 특집호, 프란치스코 사상 연구소, 2007, 150-152.

- 레이버리, 실라, 『잠의 치유력』, 김병후 역, 이채, 2003.
- 맥스웰-스튜어트, P.G., 『교황의 역사』, 박기영 역, 갑인공방, 2005.
- 아씨시 프란치스코·클라라, 『아씨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편, 프란치스코출판사, 2016.
- 염승범·곽윤실, 『이탈리아 여행백서』, 나무자전거, 2015.
- 예르겐센, J.,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조원영 역, 프란치스코출판사, 2012.
- 오비디우스, 『오비디우스의 사랑의 기술』, 김원익 역, 에버리치홀딩스, 2010.
- 잔 도메니코, 니콜라 / 루프, 제럴드, 『예술과 역사의 아씨씨』 한국어판, Casa Firenze: Editrice Bonechi, 1995.
- 전수홍, 『함께 읽는 세계 교회사』 1, 생활성서사, 2009.
- 카르모디, 모리스, 『프란치스코 이야기』, 김일득 역, 프란치스코출판사, 2017.
- 폰테너, 데이비드, 『상징의 비밀』, 최승자 역, 문학동네, 1998.
- 홍수연, 『이탈리아 100배 즐기기』, 알에이치코리아, 2017.

5. 외국 자료

- Biedermann, Hans, *Enciclopedia dei simboli*, trans. Felici, Lucio, Milano: Garzanti Editore s.p.a., 1991.
- Bobbio, Alberto, “Perdono di Assisi, da 800 anni sigillo di misericordia”, <http://www.famigliacristiana.it/articolo/perdono-di-assisi-800-anni-sigillo-di-misericordia.aspx>(검색일: 2018.8.7).
- Brufani, Stefano, “Francesco di Bartolo e il Liber Sacrae Indulgentiae S. Mariae de Portiuncula”, *San Francesco e la Porziuncola*, Assisi: Edizioni Porziuncola, 2008, 185-205.
- _____, “Il liber di Francesco di Bartolo d’Assisi e l’inventio dell’indulgenza della Porziuncola”, *Il Perdono di Assisi*, Spoleto: Centro italiano di studi sull’alto medioevo, 2016.
- _____, “Il perdono di Assisi e il pellegrinaggio alla Porziuncola”, *Amicitiae sensibus: studi in onore di Don Mario Sensi*, eds. Romagnoli, Alessandra Bartolomei / Frezza, Fortunato, Foligno: Accademia Fulginea, 2011.
- _____, *La vita religiosa in Assisi dal 1316 al 1367*, Assisi: Edizioni Porziuncola, 1982.
- Convento Porziuncola, “Indulgenza della Porziuncola, 1216-2016”, <http://>

www.porziuncola.org/viii-centenario-del-perdono-di-assisi-19748-1.html(검색일: 2018.8.7).

Grégoire le Grand, *Dialogues*, tome I, Sources Chrétiennes 251, ed. de Vogüé, Adalbert, Paris: Cerf, 1978.

Magro, Pasquale, “Il «fenomeno Porziuncola» in versione iconografica”, *San Francesco e la Porziuncola*, Assisi: Edizioni Porziuncola, 2008.

Muscat, Noel, “Introduction: The Portiuncula Indulgence”, *In defence of Portiuncula Indulgence*, Malta: TAU edition, 2012.

Pontara Pederiva, Maria Teresa, “Da Assisi 800 anni di misericordia: In attesa di Papa Bergoglio si è rinnovata la «Festa del Perdono» voluto da san Francesco”, <http://www.lastampa.it/2016/08/02/vaticaninsider/da-ssisi-anni-di-misericordia-7PrvNfXVENyBeQIaqGgm6N/pagina.html>(검색일: 2018.8.7).

Sensi, Mario, “Francesco d’Assisi(Franciscus Bartholi de Assisio)”, *Dizionario Biografico degli italiani*, Volume 49, da Forino Ferdinando a Francesco da Serino, Roma: Treccani, 1997, 678–680.

_____, “Il pellegrinaggio al Perdono di Assisi e la tavola di prete Ilario da Viterbo”, *Assisi anno 1330*, Assisi: Edizioni Porziuncola, 2002.

Tomei, Alessandro, ed., *La basilica di Santa Maria degli Angeli e la Porziuncola*, Milano: Silvana Editoriale S.p.A., 2001.

Textual Analysis of Seduction on the *Study of Indulgence of Portiuncola*

Jung, Hwan Kyou

There is a story of seduction related with St. Francis at the Roseto of “La basilica di Santa Maria degli Angeli”, at Portiuncula, near Assisi.

To give a short introduction, one day, Francis throw himself to a thorny thickets to overcome his lust, after this actions, there bloom a rose there. The thorn-less rose still blooms to this today. But the story is not mentioned in his official biography. This thesis tries to find a basis of this interesting story and tries to analyze the contents.

This story is on *Tractatus de indulgentia S. Mariae de portiuncula* by Franciscus Bartholi de Assisio, Chapter 8, and it is about seduction that rose in Francis, who was praying on cold January night. To overcome the seduction, he throw himself on the thorns naked. Overcoming this seduction, a bright light shone around him, an ineffable scent and a beautiful rose bloomed, and he met Our Lord Jesus Christ with his Mother.

For a deeper understanding, *Legenda Maior* of St. Bonaventure, *Vita seconda* of Thomas Celano, and *Vita Benedicti* of Gregory the Great was taken into the consideration. With these comparisons, on the seduction story of the *Tractatus de indulgentia S. Mariae de portiuncula*, there can be seen a common seduction story with sexual seduction. The story of seduction of Francis, on the beginning and progress, it follows *Legenda Maior* and *Vita Seconda*. On the solution of the seduction, it uses the form

of *Vita Benedicti*.

* **Key Words:** Saint Francis of Assisi, Francisco Bartholi, *Study of Indulgence of Portiuncola*, Roseto, Sexual Seduction